

전주 효천지구 상습 교통정체 해소된다

연계도로 확장사업 1단계 해성 삼거리~중인 나들목 사이 1.9km 구간 도로 연말 조기 개통

전주 효천지구 주변 교통망 확충으로 출퇴근 시간대 상습 교통정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출퇴근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선제적 광역도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사업 1단계 구간을 연말 조기 개통할 예정이다.

확장사업 1단계 구간은 교통량 분산이 시급한 해성 삼거리~중인 나들목 사이 1.9km 구간으로 도로가 개통되면 평일 출퇴근 시간과 주말 교통정체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원활한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있는 회전교차로 3개소를 조성하고, 4차선 확장에 따른 과속 주행에 대한 교통안전도 대비하고 있다.

또 시는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과속 단속 카메라 등 추가 안전시설을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 조성실장은 "도로 확장공사 특성상 공사 추진 간 시민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로 1단계 구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전주시는 출퇴근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선제적 광역도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사업 1단계 구간을 연말 조기 개통할 예정이다.

'바이오산업 미래' 해법 찾는다

'전주 세계 바이오 혁신 포럼' 개최

전주시가 신성장산업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최신 동향과 기술을 교류하기 위해 세계적인 대학·연구기관, 글로벌기업들과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와 전북대학교 지역혁신센터, KAIST 바이오혁신경영전문대학원은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3일간 비대면(Zoom) 방식으로 '전주 세계 바이오 혁신 포럼'을 진행한다.

마지막날 '디지털 치료제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를 주제로 키이스트 임지용 교수와 전북대 안상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글로벌기업과 메간 코더(Megan Coder) 미국 디지털 치료제 협회(DTA) 대표가 참여해 전세계 바이오 헬스의 가장 큰 이슈인 디지털 헬스의 현재와 미래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바이오 헬스 포럼과의 차별화를 위해 미개척 분야인 디지털 치료제와 반려동물 헬스케어, 세계 바이오 헬스 분야의 핫이슈인 줄기세포 치료 등 3개 주제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바이오산업팀을 신설하고 바이오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긴 여정에 나섰다.

6일 '줄기세포 치료와 장기유사체(Organoids)'를 주제로 허버드 의대의 김광수 교수와 김진 연구원, 최동호 한양대 의대 교수, 웨일 코넬대의 샤힌 라피(Shahin Rafii) 교수가 각각 발표했다.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국내 유망의 중재의료기기 전문시설인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융합센터'를 전북대에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이외 '탄소소재 생체적합성 의료기기 지원센터'가 내년에 개소해 본격적인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에 나서고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산업이 전주시의 신성장산업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허버드 의대 맥린병원 분자신경 생물학실험실 소장은 이번 포럼에서 전주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전주시의 바이오 역량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하며, 포럼 이후에도 포럼 참여 기업, 연구기관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세계적인 대학과 연구기관, 글로벌기업들이 신성장산업인 전주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7일 박철 전북대 수의대 교수 좌장으로 '반려동물 치료제'를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회가 이어진다.

이번 2022 세계 바이오 혁신 포럼의 전체 일정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반려견 맞춤형 암 치료제개발기업 ImprMed를 창업한 임성민 대표가 바이오테크와 AI 결합을 통한 최적의 맞춤형 암 치료제 개발 사례를 발표하며, 김하정 전북대 수의대 교수는 '개 고양이의 아토피 피부부염 치료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아영 기자

'천년 문화도시, 전주의 자부심을 만나다'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 선포식 개최... 한·중·일 문화예술 교류사업 1년간 추진

전주시는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 선포식을 개최하며 '천년 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알리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시는 6일 내년 1월부터 1년간 펼쳐질 한·중·일 문화예술 교류사업인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 슬로건 제정 선포식'을 열고, '천년 문화도시, 전주의 자부심을 만나다'라는 슬로건을 선포하며, 천년 문화도시 전주의 자부심을 만나는 시간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슬로건은 후백제의 왕도이자 조선왕조의 뿌리였던 찬란한 전주의 역사와 자부심을 강조하고, 동아시아 3개국의

문화교류를 통해 전주만의 문화도시 브랜드를 아시아를 넘어 세계까지 확산시키고자 하는 바램이 담겨있다.

이날 전주 라한호텔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전주시의원,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문화예술인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선포식에서 시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소개,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다양한 문화공연도 진행돼 전주의 문화 역량을 대외에 홍보하기도 했다.

'동아시아문화도시'는 지난 2012년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매년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를 선정해 연중 문화예술 협력 및 교류사업을 연중 추진하는 국제행사로서, 오는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는 대한민국 대표인 전주시를 비롯 중국의 청두, 메이저우, 일본의 시즈오카현 등 4개 도시가 선정됐다.

성공적인 국제행사 추진을 위해 시는, 전담 조직인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팀을 구성하고, 관련 기관 대표와 문화예술 각 분야의 단체장,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시는 내년 공식행사인 개·폐막식과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비롯해 '한·중·일 문화도시의 세 울림' 등 5개 기획사업, 지역의 대표축제와 연계 추진하는 동아시아 영화특별전 등 7개 교류사업, 아카이브 사업을 포함한 2개 부대사업' 등 총 4개 분야 17개의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만의 문화적 우수성과 예술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현대와 전통을 아우르고, 시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예술축제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천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문화도시 전주가 가진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전주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완산구, 경로당 임원 대상 보조금 정산 대비 현장교육 추진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2022년 경로당 보조금 정산을 대비해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닷새동안 관내 318개소 경로당 회장 및 총무 등 임원진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마련한다.

이번 교육은 투명하고 명확한 경로당 보조금 운영을 위해 경로당 보조금 정산 시 필요한 집행 기준과 주요 사례를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각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여기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동절기 대비 행동 요령과 겨울철 건강관리 유의사항 등 한파 대비 교육도 병행해 실시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희망의쉼터' 향한 온정의 손길

추운겨울 전주 '희망의쉼터' 향한 온정의 손길이 전달되며 훈훈한 사랑이 감돌고 있다.

전주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회장 정원선)는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지역 노숙인쉼터 2곳에 200만 원 상당의 방한용품과 생필품을 6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온열매트와 개인위생에 도움이 되는 생활용품으로, 완산구 다시서기센터와 덕진구 희망의쉼터 이용 거주자 50여 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연합회는 앞서 노숙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파악하고, 혹한기 개인 난방과 위생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방한용품과 생필품을 마련했다.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들이 직접 전달식에 참여해 노숙인들의 일상 회복을 응원하기도 했다.

정원선 전주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장은 "고물가 경제 불황기에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를 비롯한 각 동 협의체 위원들이 이웃 사랑 나눔에 동참해주시고 고맙다"면서 "어려울수록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강화 및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경찰청, 9일 음주운전 일제 단속 펼친다

전북경찰청은 야간 음주운전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실시를 예고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연말연시' 각종 모임에 의한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어 음주운전 사고 및 예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9일 도내 각지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계획했다.

특히 금요일 야간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시간대별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지역 각지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집중 음주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연시' 상시 음주단속을 펼쳐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철수 교통과장은 "연말연시 모임 및 지인들 만남에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도민여러분의 참여"를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